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캐나다
	대학명	Guelph university
파견기간	2023년 9월 ~ 2023년 12월	
프로그램	▢ 정규 ▢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1) 유학생 보험: 유학생 보험의 경우 충북대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님의 말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궬프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연결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어서 에이전시님이 따로 신청해주셨어요. 궬프대에서 제공하는 보험과는 같은 걸 제가 따로 등록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론 이게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경우라고 들었기 때문에 에이전시님께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2) 비자: 제 경우에는 추가로 어학과정을 더 밟을 생각이라 학생비자를 끊고 갔습니다. 캐나다는 6개월 이내면 무비자가 가능해 eTA만 하고 오시면 되는데, 추가로 길게 더 머무르고 싶으시면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학생비자를 끊었고, 이 과정 또한 에이전시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대행비용을 내야해 조금 비용이 들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았으므로 혼자 하시는 게 불안하다면 에이전시님께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촉박하게 결정해서 출국 거의 한달 반 전부터 시작했음에도 2주 안에 비자가 발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촉박하다보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찍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 항공권: 항공권 또한 일찍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보았으나 그러면 미국비자(ESTA)를 또 발급받아야 해서 저는 직항으로 구매했습니다. 항공권은 본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에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게 어떤 경우든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 저는 캐나다의 겨울에 간 경우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러나 히트택 같이 얇지만 따뜻한 옷을 제외하고는 너무 많은 옷을 챙겨올 필요는 없을 것 같

습니다. 궬프 근방에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옷을 사게 되고 그러다보면 짐이 늘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이곳에서 사서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들을 이곳에서 버리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산 옷을 다 가져갈 수 없어 버리고 가기 때문에 저렴한 옷을 사 입고 버리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나 전기장판은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전기장판을 가져왔는데 겨우내 잘 사용했습니다. 캐나다는 보통 히터를 틀고 자기 때문에 공기만 따뜻하고 침대 속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은 본인이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꼭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이곳은 대체적으로 춥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카페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먼지가 자주 쌓이기 때문에 청결에 신경이 쓰이신다면 돌돌이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져오지 않았으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텀블러나 보온병을 자주 쓰기 때문에 본인 것을 하나 챙겨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하나 가져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궬프대 내에도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이 그리울 것 같다 싶으면 몇 개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 고추장, 김, 라면 이렇게 가져와서 잘 먹고 있습니다. 불닭소스도 가져왔으나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가장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물던 시기는 그다지 추운 겨울이 아니었다고 들었으나 보통은 눈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하니 이와 관련 물품을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이나 핫팩은 한국이 더 저렴한 것 같으니 미리 구매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건 또한 홈스테이에서 제공되는 것이 한정적이므로 캐리어에 공간이 남는다면 챙겨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캐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저렴합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캐나다였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합니다. 문화는 아마 에이전시님이 예절수칙 정도 알려주실 텐데 그 정도만 유념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인종국가다 보니 저는 인종차별을 겪진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영어로만 대화하시면 차별당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물가는 대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밥 한 끼에도 2~3만원은 훌쩍 나갑니다. 또한 초기 정착 비용이 들다보니 첫 한 달은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턴 본인이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하냐에 따라 금액이 적당히 고정될 것 같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캐나다는 빅토리아와 궬프가 있었는데 저는 도시인 토론토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들은 후기들도 궬프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궬프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캠퍼스도 크고 밥을 먹는 카페테리아 음식들도 맛있다고 들어 선택하게 되

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 제 경우에는 에이전시님이 먼저 한인기사님과 컨택해주셔서 그쪽을 이용했습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제 친구와 두명이서 타고 갔는데 각각 7만원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 수강신청은 본인이 출국 전 레벨테스트를 보면 그 결과에 맞게 알아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표에 맞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첫 수업을 들어보고 본인의 레벨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면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충분한 상담 후 재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내용은 레벨과 선생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대학과 비슷하게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중 옆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발표, 게임 등 액티비티 시간이 있으나 액티비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십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 저는 기숙사에 자리가 다 찼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이용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에이전시님께 여쭤보면 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홈스테이에 머물게 되실 시 가족 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물어봐서 챙겨갔는데 외국인은 보통 매운 걸 잘 못 드시니 김자반이나 안 매운 음식들을 나눠주는 걸 추천합니다. 홈스테이는 대게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너무 안 맞으면 에이전시님께 부탁해 옮기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귀국 전 홈스테이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별로면 미리미리 컨택해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지내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비교를 해야 본인의 홈스테이 가정이 괜찮은지 아닌지 알기 쉽습니다. 다만 사소한 문제로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0프로 다 만족하진 않았지만 4개월 동안 바꾸지 않고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홈스테이에 가면 영어가 빨리 늘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본인들의 생활이 있어 그렇게 빨리 느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 캐너디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전 필리핀 가정을 선호했습니다. 물론 집마다 다르겠지만 캐너디언의 저녁은 대체적으로 푸짐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저녁에 빵만 먹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필리핀 가정을 원했습니다. 필리핀 가정이라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 ELP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에 따른 액티비티들이 달마다 주어집니다. 대부분이 무료이며, 저는 이 액티비티를 통해 나이아가라도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좋고 안전한 것 같아 액티비티 이용을 추천합니다. 토론토랑 멀지 않아 주말에 자주 토론토로 놀러갔습니다. 궬프가 생각보다 작아 아마 토론토로 많이 나가게 되실 것 같은데 그때 하고 싶으셨던 걸 미리 찾아두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를 받으러 학교까지 가는 딱 하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동전으로 미리 좀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생활은 그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학교 체육관도 이용했는데 7주에 3만원이라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기구도 많이 구비되어 있고 넓어서 저는 애용했습니다. 또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음식들이 가격대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거의 다 맛있습니다. 본인의 캠퍼스 카드에 돈을 충전하면 텍스 붙지 않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본인이 카페테리아를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캠퍼스 카드에 돈을 충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30만원 이상을 충전해야만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액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한 두 번 사먹고 말기엔 컸던 걸로 기억하니 꼭 본인이 많이 사먹을 것 같은 경우에만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 저는 가까운 퀘벡과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퀘벡은 원래도 꼭 한 번 가보고 싶던 곳이라 학교 텀 중간에 비는 방학을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는 성수기여서 비쌌기 때문에 한인여행사를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뉴욕은 학기가 끝나고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토론토 공항에서 가기도 가깝고 해서 계획했는데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이 아니라 아일랜드 공항으로 이용했습니다. 아일랜드 공항도 토론토 다운타운까지만 가면 셔틀버스가 있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퀘벡과 뉴욕 둘 다 3박 4일로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퀘벡은 좀 더 오래 머물렀어도 좋았겠다 싶을 정도였으나 뉴욕은 3박 4일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 가서 베이글이랑 뉴욕 치즈케이크도 먹고, 자유의 여신상과 타임스퀘어도 다 본 일정입니다. 퀘벡 또한 유명한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명소는 전부 돌아본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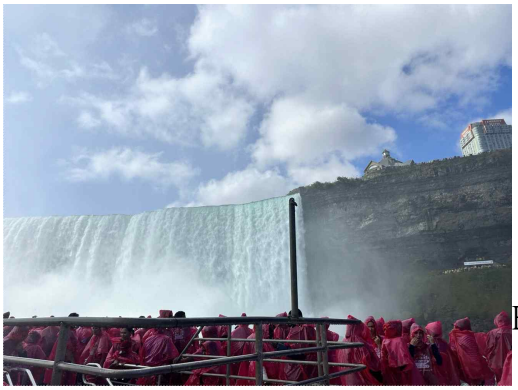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장기로 해외에 나가시는 게 처음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고 떨리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첫 시작은 두려움과 떨림이듯 마지막엔 값진 경험으로 남을 테니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몇 없는 값진 기회가 될 텐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시고,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누리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세계 여러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외국에 혼자 나가는 것도 전부 저에겐 뜻깊었기에 같은 경험을 꼭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퀠프대 마스코트

퀠프대 전경


ELP 프로그램으로 간 나이아가라 보트타기

ELP 프로그램에서 할로윈 시즌에 만든 펌킨 데코

ELP 프로그램에서 보러 간 퀠프 하키게임